

#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오클랜드 성 김대건 성당, 청년 단체 트락회 '일일피정' 가져



오클랜드 성 김대건 성당 트락회 피정 참가자들이 김명식 신부의 강의를 듣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 김대건 성당(주임 김명식 가브리엘 신부) 청년단체 트락회의 연례피정이 지난 24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캘리포니아 멘로파크에 위치한 발롬브로사 피정 센터(Vallombrosa Retreat Center)에서 열렸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피정은 김명식 신부가 지도했고, 20대에서 40대까지 12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피정은 트락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 강의, 나눔, 묵상, 찬양, 오락 등의 여러 활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신부님의 강의와 짧은 영상물 시청 후 조별나눔으로 이루어졌다. 김 신부는 '신앙인의 태도'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나와 다른 것도 인정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태도로 이 세상을 살자. 하느님 안에서 맞고 틀린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나의 현재 위치를 인식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방향성을 항상 인지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누가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했나'라는 영상을 시청하고,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이 모두에게 하나로 정해진 경로와 목적지가 아닌 주관적인 목적지를 향해 다양한 길로 갈 수 있으며,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여러가지가 있음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또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만능주의, 넘쳐나는 정보시대에서 풍요 속에서의 인간성 상실, 편리함과 빠른 속에서의 가치 상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두어야 할 중심적인 가치에 대해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피정에서 나눔과 오락 등의 조별활동으로 서로의 생각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고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이끈 봉사자 전진영 베로니카는 "모두에게 작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는 피정이 되길 기도했다. 깊은 공감과 따뜻한 나눔 속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느님과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소정 마틸다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의미가 깊고 중요한 주제여서 피정 시간동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또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기사/사진 제공: 권창모 미카엘



## "아이티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정창용 신부  
노인 요양원, 아이티

2012년 5월 한국의 꽃동네에서 아이티로 수도자들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한명의 수도자였습니다. 아이티란 나라... 그저 가난하고 지진이 잦던 나라가 아닌 정보의 전부였습니다.

신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도착한 아이티의 공황... 도착하는 순간 '선교의 열정?' 그런것들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날씨, 지저분한 환경, 낮은 흑인들, 낮은 언어, 곳곳에 버려진 물건들, 총기 사고로 인해 병원에 버려진 사람들, 살아 있어 구더기가 득끓는데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이들... 저희가 도착한 꽃동네 노인요양원 역시 거리의 아이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250여명의 노인들이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여기서 무엇을 할수 있었습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더운 날씨에 하루가 다르게 몸은 지쳐만 갔지요.

하루는 할아버지 한분이 온 몸에 땀을 하고 집안에서 계셨습니다. 이미 지치고 열정은 사라진 제가 그분의 몸을 닦아드리는 것이 전과 같이 쉽지 않았지요. 물이 어디 있고 비누가 타올이 물 그릇이 어디 있는 줄 어떻게 알니까. 멀리 펌프에서 물을 길어 맨손으로 땀을 털어내며 닦아내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땀 문은 신발을 털어내면서 나름 신세 한탄도 했지요.

대충 마무리 하고 돌아서는 길에 마을에서 평화가 오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네가 특별해서 여기 보낸 것이 아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능력이 많아

서 여기 보낸줄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여기 너를 보낸 이유는 아이티의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널 성인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티를 너를 위한 선물로 주는 것이다."

지금 한 3년 반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아이티는 저희들에게 선물입니다. 저와 함께 사는 수도자들에게 그리



정창용 타대오 신부(오른쪽)가 김태형 아고보 수사 신부(왼쪽)와 손 트모양을 하고 있다.

고 우리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역시 하느님 구원의 도구입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6명의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공소까지 함께 서로 즐겁게 화합하는 장

투산 바다의 별 성모마리아 성당 '야외미사' 봉헌



투산 바다의 별 성모마리아 성당 신자들이 야외미사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애리조나】** 투산 바다의 별 성모마리아 성당(주임 유창우 암브로시오 신부)은 10월 25일

(일) 오전 10시 30분 리드 공원(Reid Park)에서 야외미사를 가졌다. 이번 야외미사에는 시에라

비스타 공소 10명 포함 총 41명이 함께했고, 유신부는 "화창한 날씨에 바다의 별 성모마리아 성당과 시에라비스타 공소가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 서로 더욱 즐겁고 화합하는 야외미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사 후 알아맞추기, 피구, 2인 1조 발 묶고 달리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겼고 유신부의 마칭기도로 야외미사를 마쳤다. 화창한 날씨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신자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게임이 모두 끝났을 때는 하루가 정말 빨리 간다며 다들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공성녀 아네스는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다. 시에라비스타 형제자매님과 만날 기회가 자주 없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이번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서민준 토마스 아퀴나스는 "유창우 신부님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함께 하는 마지막 야외행사여서 그런지 좀 아쉽고, 그래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사진 제공: 김찬중 마리오한

## ABC 미주평화신문 The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nue, Flushing, NY 11354  
Home page: [peacetimesweekly.org](http://peacetimesweekly.org)  
E-mail: [editors@peacetimesweekly.org](mailto:editors@peacetimesweekly.org)

The Peace Times Weekly (USPS 10804) is published weekly (except Lunar New Year, Summer Vacation Week & Korean Thanksgiving) for \$130 per year by The Peace Times Weekly, Inc. Periodical postages paid at Flushing, NY.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The Peace Times Weekly, Inc. 145-27 33rd Ave., Flushing, NY 11354

구독료: 1개월 \$13.00 / 1년 미국 \$130.00 (USD) 캐나다 \$300.00 (CAD)

Publisher: Rev. Young Chun Kim  
발행인: 김영춘 베드로 신부  
Tel. (718) 762-6500, 5107  
(800) 219-1137  
Fax. (718) 762-5108

미주평화신문 (USPS 10804)은 미국,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톨릭 신문이며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주평화신문은 매주일 발간하는 주간지이며 설날, 여름 휴가, 추석 3회를 휴간합니다.

# 2015

## 12월 26일-28일

제16차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피정 [장세기 / 목시록]

[Http://cafe.naver.com/crscsc](http://cafe.naver.com/crscsc)  
주최 : 중남부 성령 봉사자 협의회

#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그리고 우리의 하느님

지도신부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님 초대강사 김영욱 블라시오 신부님 두번째 울리안나 찬양 김능자 골롬바 외 찬양팀	장소: Holy Name Retreat Center 430 Bunker Hill Rd. Houston, TX 77024 참가대상: 중학생 이상 모든 신자 참가비: \$270 문의: 흥권의 레오 (713.834.5430), 박진연 스텔라 (956.566.1796) 윤영주 아우구스티나 (512.627.8225)
---	--

★ 사전에 참석기와 요한 목시록을 읽어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명:	세례명:	생년월일:
전화:	주소:	
성별: 남( ) 여( )	e-mail 주소:	
소속 본당:	희망 언어: 한국어( ) 영어( )	
신청비: check( ) cash( )		
보낼곳: 받는사람 Saebom Ko / payable to CRSC-SC 501 E. Stassney Ln. #1212 Austin TX 78740		
본인은 이번 영성 피정에 참석하기를 희망하며 참석시 모든 피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기를 약속합니다. 접수날짜: 201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Official Use	Payment	Check	Cash	Other
	Amount			
	Check No.			